

남원 일반산단조성 '순항'

매주 화요일 출장 보상협의 상담... 10월경 공사 발주 예정

남원시(시장 이원주)가 사매면 월평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동부권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5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77만6,000㎡ 규모로, 사업지구에 포함된 보상 대상 토지는 317필지 69만9,000㎡이다. 남원시는 5월말 현재 보상대상 토지 중 70%인 48만9,000㎡를 매입 완료하였다.

올해는 보상비 70억 원을 확보하여 순조롭게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45억원을

확보하여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매주 화요일에는 사매면사무소에 담당 및 직원 출장을 나가 보상협의와 각종 보상 관련 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나이 많은 민원인과 입실군에 거주하는 다수의 민원인이 남원시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8월부터 순조롭게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지 출장만으로 총 160건 90억원에 달하는 보상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단순히 보상실적 향상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행정신뢰도 구축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입한 토지 중 경작지에 대해서는 경작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를 통하여 경작하도록 하고 있다. 남원시는 사용수익허가로 약 900만원의 사용료 세외수입을 올렸다.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작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농농사 직불금 수령대상자 자격을 얻게 되었다.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10월경에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본격 건설공사가 추진되면 1,000억 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또,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2,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4,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세수입도 연간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내년 본격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0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은 지난 15일 국내 1위 치킨프랜차이즈 기업의 교촌그룹과 발효소스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발효소스 공동개발 및 상품화에 협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순창군,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과 업무협약

발효소스 개발·상품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역농산물 활용 기대

소스산업 육성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이 민간기업체와 네트워크강화에 나서 향후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15일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교촌그룹과 발효소스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발효소스 공동개발 및 상품화에 협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영성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교촌그룹 권원강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교촌그룹 권원강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사장단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교촌그룹은 전국 1,100여개의 지점을 보유한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1위 기업으로 다양한 소스를 활용한 치킨개발로 매출액이 2,600억원에 달하

는 기업이다. K&P푸드, 계림물산, (주)비에이치앤바이오 등 계열사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순창군과 교촌그룹은 발효소스의 공동개발과 상품과 지역브랜드 홍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노력하게 된다. 특히 교촌그룹(주)비에이치앤바이오사는 공동개발 제품을 활용하고 지역브랜드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동개발제품 생산에 순창군 농특산물을 적극 활용은 물론 지역 상생발전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열린 협약에 앞서 교촌그룹 실무자가 수차례 순창군을 방문해 개발소스 원재료의 계약재배 가능성을 타진하고 발효미생물산업 소스산업의 접목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알려져 발효소스개발과 상품화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판매에도 기대

대가 모아지고 있다.

구원강 교촌회장은 "교촌의 성공 비결은 경쟁기업과는 차별화된 소스에 있었다"며 "이제 또 다른 혁신과 성공을 위한 노력을 순창과 함께 진행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고 협약 취지를 밝혀 사업 성과에 따라 순창에 지속적인 투자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식 이후에도 순창군의 토굴저장고, 순창장류주식회사, 한국절임주식회사, 순창군건강장사사업소 등을 방문해 순창군의 특화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스에 사용되는 원재료 공급뿐만 아니라 순창군이 갖출 수 있는 발효소스 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 정보화마을, '복분자 수박축제' 서 홍보 부스 운영

내일부터 19일까지 선운산도립공원 생태숲 일원에서... 농촌체험·나무인형만들기 등 제공계획

고창 정보화마을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선운산도립공원 생태숲 일원에서 열리는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에서 정보화마을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고창 5개 정보화마을(하전·복분자·고사리·고인들·반암)은 갯벌체험과 복분자짜기 체험 등 정정 자연을 테마로 하는 농촌체험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마을이다.

축제장에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고창군의 우수 농산물과 농촌체험관광 등을 홍보하고 나무부채 만들기과 나무인형만들기와 같은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화 마을 관계자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고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정보화 마을 상품과 체험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국비지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자개공예·곤충표본 만들기 등

남원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 시관에서는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주 6회 자개공예, 토피어리 만들기, 곤충표본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산림청에 체험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 4월에 예산지원이 확정되었다.

남원시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에 홍보공문을 발송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내 곤충은실, 체험교실에서 매주 수·일(자개공예), 목·토(토피어리 만들기), 토·일(곤충표본 만들기) 순회교육, 현장접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어린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인근 타시도에서도 체험프로그램 문의를 통해 전시간을 찾는 발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옛 자개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조개껍질을 원료로 한 다양한 모양과 색을 입힌 자개와 자개가루로 직접 디자인하여 만드는 자개거울 만들기, 수태를 인형으로 만들고 아이비 같은 실내 공기정화 식물을 심어서 집에서도 기를 수 있는 토피어리 만들기, 장수풍뎠이·바구미·사슴벌레를 연화작업을 통해 다리를 펴고, 곤충핀으로 고정하는 곤충표본 만들기 등이 있다.

특히 곤충표본 만들기와 함께 다양한 곤충을 만나볼 수 있고 곤충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다.

남원시에서는 연말까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개관 기념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별전을 통해 희귀 곤충 체험전과 양서류·파충류전도 준비중에 있어 앞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관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공무원노동조합 수박 직거래 판매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용진)이 고창군 홍보와 고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수박 직거래 판매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서울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수박 직거래 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진 고창군노동조합위원장, 이흥기 서울시노동조합위원장, 류영록 공노총위원장, 강창조 기초연맹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참석해 고창군 홍보전과 고창수박 판매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수박의 주산지인 대성농협 정남진 조합장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수박을 엄선하여 직거래 행사에 협조했으며 이날 수박 400여개를 팔아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임실군은 하안읍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2억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운암면 마암, 운중, 운암, 금기, 운정리 일원에 배수관로 18km 및 배수지 1개소를 신설하고 마을안길까지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군은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를 간이상수도로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하안읍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위생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어린이 복분자 그림 엽서 보내기

순창군이 지역 아이들이 그린 복분자 그림을 엽서로 만들어 미술인과 도시민들에게 보내는 행사를 기획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 삼진강미술관 미술강사팀은 지난 14일 삼치초등학교를 방문해 5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를 지도했다.

특히 이날 그림지도는 복분자 그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삼치면 지역은 전국적인 복분자 특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요즘 복분자가 한창 수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날 행사가 아이들에게는 지역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농특산물을 독특한 방법으로 대도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주원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행사는 삼진강미술관의 활성화와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 마련했다"며 "그려진 그림은 빠른 시일내에 엽서로 만들어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노지 고추 병해충 중점 방제 현장지도

임실군은 최근 고온현상으로 고추 재배포장에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지고추 병해충 중점 방제'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역병은 고추재배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일반 포장에서 정식 후 6월 초순부터 7~8월 잠마늘 경우랑과 강수 일수에 따라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어린 묘에 감염되면 줄기가 암갈색으로 잘록해지며 점차 말라죽고 생육 증가 후에는 포기 전체가 말라죽는 증상을 나타낸다.

고추 탄저병은 열매가 맺히는 6월 중·하순부터 시작돼 8~9월의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주로 과실에 발병해 기름방울 같은 연녹색 작은 반점이 생겨 움푹 들어간 모양 증상을 보인다.

고추재배의 주요 해충인 총재벌레, 진딧물, 담배나방 등은 식물의 순, 꽃 또는 잎까지 습기를 빨아드리며, 발육기간이 짧아 증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면밀한 예찰 및 관찰을 통해 초기에 방제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약 사용 시 적용병해충, 사용약량, 주의사항 등을 규정에 맞게 숙지하고, 살포작업은 아침이나 저녁 서늘할 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군 관계자는 "잠마늘을 맞아 습해로 인한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주대와 유인줄을 보강해 도복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현장지도 활동 및 홍보를 강화해 고품질 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군, 협력치안구축 간담회

남원경찰서 수지파출소는 15일 자율방범대(회장 박병환)와 민경 간 유기적인 협력치안 구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주민의 체감치안과 직결된 성폭력 등 여성범죄예방을 위한 방안과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불안요소 해소방안 및 합동순찰 등 참여치안활동으로 여성범죄 없는 청정 수지면을 만들기 위해 토의했다.

그리고 김순호 소장은 농번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사고 증가에 따른 읍주운전 금지등 교통법규 준수 및 농기계 후면에 반드시 아광 반사판이나 방향지시등을 부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